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의 공동생활 가정, 하늘다운 집 ‘그룸 홈’



▲ 사진앞쪽이 그룸홈 식구들. 뒷줄 오른쪽은 서울시립 정신지체인 복지관 김수진 계장

이른 아침 서울 강서구 기양동 도시개발아파트 801동과 803동 103호의 식구들은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각각 출근준비를 서두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두 집에서는 10명의 식구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것. 두 집의 지도교사를 뺀 8명 모두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것뿐이다.

언뜻,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출근을 한다구?’ 하는 의아스러움에 고개를 가웃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은 일단 버리시기 바란다.

인간의 가능성이란 무한하다고 한다. 이 말은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무언가를 배우고 개발하는 시간은 몇 배 더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에 의해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803동의 이정근씨(31)가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지도 벌써 6년이 넘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을 차량스피커 제조회사인 한국음향에서 근무해 왔다. 최근에는 모범사원 표창을 받았고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칸 마련했다.

함께 살고 있는 권태우씨(34), 최유택씨(25), 그리고 801동의 이현숙씨(30), 장현숙씨(25), 한명임

씨(32), 천은영씨(28)도 이씨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룸 홈에 들어오기 전엔 이들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60년 후반부터 미국·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주서비스프로그램인 그룸 홈(Group Home)은, 지역사회 내의 보통 주택에서 몇 몇의 정신지체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능숙치 못한 일(금전관리, 대인관계, 취업 등)을 전문 지도교사에 의해 도움과 훈련을 받는 생활형태로서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92년 10월



▲ 경주 문화 엑스포 관람을 갔던 기양동 그룹홈 식구들.

에 서울시에서 그룹 홈 운영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해에 모두 6곳의 그룹 홈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은, 장애인 4명과 생활보조원(지도교사) 1명이고, 현재 남자 그룹 홈이 4곳, 여자 그룹 홈이 2곳입니다.』

그룹 홈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립 정신지체인복지관의 김수진 계장의 이야기다. 김씨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6곳 외에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룹 홈도 50여 개가 있다고 한다.

김씨는 또, 『그룹 홈은 직장생활을 통한 자립을 원칙으로, 기본적인 신변자립, 가사·여가·사회 생활 훈련, 그리고 식구들의 단합과 구성원 부모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갖습니다. 그룹 홈의 운영은, 주택비나 생활보조원 인건비 등 서울시가 지원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식구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룹 홈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해 설명한다.

그룹 홈의 일원이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서울시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인 중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상생활이나 공동생활, 취업



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입소 이전에 복지관에서 일정기간 공동생활이나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생활이나 취업의 측면에서 자각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처음 그룹 홈이 자기 동네에 생긴다고 할 때, 주민들은 적지 않게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룹 홈 식구들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 본 주민들은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입사 초기에는 못마땅한 눈빛만을 보내던 직장 동료나 상사들도 이제는,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게 되었다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취업문제다. IMF는 이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하기도 했다.

물론 실직을 하게 되면 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된 복지시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활

짝 열려 있는 세상살이이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통해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오로지 독자적인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자아를 실현해 가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마침내 곳곳하게 홀로 서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다.

너무나도 소박한 이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할 수 없어’ 보다는 ‘힘들겠지만 꼭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과 격려를 보낼 수 있는 이웃과 직장이 정말 절실하다.

803동 정근씨네 집 생활지도교사 이경숙씨는, 『식구들에게 실업 같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해결을 위해 안타깝게 뛰어다녀야 하지만, 식구들 모두가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 처럼 가까워지고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죠.』라고 한다.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 안부 편지도 쓰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번 돈으로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보태는, ‘하늘 닮은 집’ 그룹 홈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고, 작지만 큰사랑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 본다. ㉗

“그룹 홈에 관심이 있으신 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2동 395 서울특별시립 정신지체인 복지관

(02) 846-1569, 9275, 9277, 834-7065